

영상 아카이브 [완주예술인 ON]

완주 구석구석을 예술로 물들이다. '유순애' 작가

당신은 누구인가요?

저는 에코 예술 창작소 유순애입니다.

하고 계신 작업은 무엇인가요?

예쁜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로 해서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벽화 내지는 구조물로 테라코타로 해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서 마을을 꾸미고 마을을 활성화 시키는 작업을 했고요.

마을마다 주제 선정은 어떻게?

항상 저희 작가들이 그냥 들어가서 디자인해서 하고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마을에 가면 마을 이장님하고 부녀 회장님하고 마을 어르신들하고 주민들과 함께 항상 회의를 거쳐서 우리 마을에 내려오는 스토리텔링, 우리 마을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든지, 이 마을은 예전에 뭐가 있었던 마을 그래서 인디기 (인덕) 마을이 왜 됐고 싱그램이 마을이 왜 됐고 그 마을 이름 따라서 다 전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소재를 찾아가지고 그 형상을 만들던지 딱 어디 와서 봐도 아~ 이 마을은 호랑이하고 뭔가 연관이 됐나 그러면 호랑이를 만들어서 하고 그런 어떤 얘기 속에서 소재를 찾아가지고, 그리고 만들고 같이 조형을 했죠.

공공미술이 마을에 끼치는 영향은?

상호 마을 같은 경우는 메주를 만든다고 해서, 발효식품 청국장을 한다고 해서 흙으로 메주를 빚어 가지고 메주 형상도 만들고 그 미꾸라지 형상도 만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같이 열 마리, 다섯 마리씩 만들어서 거기다가 각각 이름도 쓰고 그래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붙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본인들 작품이 거기 마을에 있고 하니까 항상 이렇게 손자들이 와도 외부 손님들이 와도 본인이 했다. 어르신이 했다는 어떤 자부심이나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애착도 가지시고 주변 청소도 하시고 그래서 마을도 깨끗해지는 어떤 계기가 됐던 거 같아요. 그 마을, 조용했던 마을이 서울에서도 블로그 보고 찾아오고 사진을 올려 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그 오지 마을을 학생들이 와서 이제 마을이 조금 시끄러워지고 하니까 동네가 이제 사람 소리 나고 하니까 주민들이 엄청 좋아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같이 그런 일들이 계기가 되어서 굉장히 친절도 하시고 우리 마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나와 계시면 그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그때는 어르신들이 미꾸라지를 직접 자연산을 잡아서 관광객들한테 추어탕도 끓여 주고 그래서 마을의 소득원도 됐고.

공공미술의 지역에서의 가치는?

공공미술은 단순히 이렇게 그냥 공공미술, 예술의 가치로 보기보다는 그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같이 할 수 있는 그 점이 참 좋았던 거 같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술가라고 해서 예술가 혼자 작업을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같이, 소통, 단합 이런 것들 그리고 뭔가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혼자면 조금만 하겠지만 여럿이 하니까 그 양도 많아지고 그 효과도 그 배가 되는 거 같아요. 하면서 제가 좋았던 게.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공공미술이니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했다가 이 많은 사람들과 주민들과 진짜 13개 읍면의 그 마을 사람들, 오지 마을 사람들 우리 행사 때 한 번씩 이렇게 만나면 반갑고 그런 어떤 소통.

그거에 굉장히 저는 보람 느끼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마을이 예뻐지면서 우리 마을에 뭔가 소득원으로 마을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끌어냈던 거 그게 보람이었던 거 같아요.

와일드푸드축제 곶감 덕장 조형물?

완주는 너무 많아요. 감, 수박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래도 제가 조형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게, 표현할 수 있는 게 감이 적정했었고 이게 이제 일반 그냥 제작도, 그냥 찍어 내도 되지만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만의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소재도 그 한지가 대승한지, 우리 지역의 대승한지가 유명하다고 해서 한지를 소재로 택해서 이제 덕장. 감 하나하나를 감나무에 걸린 감보다 곶감이 유명해서 곶감을 말리는 덕장을 표현하고 만들다 보니까 감 줄을 만들게 됐죠.

그게 이제 어떤 조형을 처음에 시도했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만들어서 한 장소에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매 해마다 하게 된 것이 이제. 이게 다 수공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일자리,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면서 그래서 주민, 선생님들 몇 분이서 계속 1년 동안 만들어서 축제 때 같이 참여하게 되었죠.

보람을 느낄 때?

저는 가서 해놓은 그런 것도 보람되지만 주민들하고의 그 얘기나 그 어르신들. 10년 후에 갔는데도 반겨주시고 그 분들이 너무. 저는 잊어버렸을 거 같은데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구마도 쪘서 주시고 밭에 나는 농작물도 싸주시고 올 때 그럴 때 저는 보람을 느꼈어요.

앞으로의 계획?

계속 이런 저기로 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걸로 발판이 돼서 좀 더 제 손이 가서 좀 더 예뻐지고 누구한테든 기분 좋은 뭐가 된다 하면 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그냥 즐기고 일 자체를 저는 일이라 생각을 안 하고 제가 그냥 가지고 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주민들하고 또 가면 일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을 하나 더 알아지고, 그 마을에 대해서 알았다고 또 그분이 어디를 갔을 때 서로 소통이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거 같아요.

일을 하면서 저도 가져 오는게 너무 많았었어요. 제가 쳤다라기보다 제가 받아오는 것들이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계속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마을도 이렇게 만들었으면 너무 이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생각도 다니면서. 완주 구석구석 예쁜데가 너무 많아요. 그냥 그 자체로도 이쁘고 요기만 조금 이렇게 터주면 좋겠다. 여기에 뭐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항상 다니면서 머리 속에 그려지고 스케치되고 그런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하겠지만 그게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그런 어떤 자문이라던지 다니면서 이런 데 이렇게.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는 안 될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하는 것들 여기에서는 넘쳐나는 것이 여기는 부족하면 이렇게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마을과 마을을 잇는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완주에서 예술가로 산다는건?

예술인으로 완주에서 살아가는 것은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행복했고 그동안 많은 질타도 받고 뭐 아닌 사람들한테는 그걸 왜 하냐고 원망도 듣고 했지만 오래 두고 본 지금 시간이 흐른 뒤에 보면 되게 보람되고 행복했어요. 저 나름대로 즐겁게 일했고. 즐겁게 저는 즐겼던 거 같아요.